

3/19/16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제2장 코즈모폴리터니즘의 특성과 가치

A. 주제(Thesis)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철학적 존재함의 의미로 부터, 1960년대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된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반본질주의적 자아 이해에 근거한 '포스트모던 주체'로, 또 지리정치학적 시각이 더해진 '코즈모폴리터니즘'으로 발전 설명되어졌다.

B. 문제점/질문(Problems/questions)

새로운 개념들은 시대 상황과 인식이 변화하면서 매번 다양한 비판과 도전을 마주하여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진다. ·

C. 논점(Argumentation)

1. 정체성의 정치학과 코즈모폴리턴 정체성

정체성의 정치학

- 1. 사회의 소외집단이 지배집단에 의해 말해지는 객체에서 스스로 말하는 주체 (Spoken object -> speaking subject) – 여자(여성운동), 흑인(민권운동)
- 2. 주변화된 집단의 다른주변화된 집단과의 연대를 통한 자기긍정의 공간을 창출: 주류 집단과의 상이성을 긍정의 정체성으로 전환하고 차이의 정체성 강조
차이의 정치학의 한계
 - 1. 나/우리, 너/그들 이라는 이원론적 사유방식을 넘어서지 못함
 - 2. 본질주의적 자아 이해에 근거—자아에는 불변하는 어떠한 본질이 있다고 보는 이해
 - 3. 다른 집단과의 차이성을 매우 강조, 같은 집단 안의 서로 간의 차이성은 간과 (여성/흑인 해방운동)

코즈모폴리턴 정체성

고정된 본질주의적 자아 개념을 넘어 자아속에 내재된 복합적인 모습과 인종, 성별, 성적 성향 등 인간의 다층적 요소들의 교차성을 강조한 포스트모던 정체성에 우주적/지리적 시각을 주입

- 1. 성별, 인종, 문화, 성적 성향등 고정적 정체성을 넘어 지구적 관점 강조
- 2. 다양성과 상이성에 대한 전적 개방성과 지속적 예민성에 근거
- 3. 나와 너 또는 우리와 그들의 불가피한 상호연관성에 근거

2. 코즈모폴리터니즘에 관한 다양한 관점

부정적 관점

- 나치 : 계획된 대량학살의 모든 희생자들-사형선고
- 기독교인들, 귀족들, 상인들, 유대인들, 동성애자들, 지식인들
- 다문화주의 찬양, 특권계층, 탈정치적

- 그람시 : 자유롭게 부유하는 지식인
- 파농 : 민족적 소명에 방해

긍정적 이해

- 두 보이스 : “범아프리카주의자인 동시에 코즈모폴리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평화운동가, 유엔창립에 기여
 각 나라들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비전
- 개방적 민족주의/애국주의는 세계 모든 사람을 한 민족으로 보는 세계시민 의미를 실현하고자 한다

3.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주요 특성

도덕적, 정치덕, 종교적 관점에서 조명

1. 모든 생명의 거시적-상호의존성, 우주적 공동체(cosmic community)-개별적 개인들을 도덕적 가치의 근원
 개별인들이 태어난 조건은 필연성이 아닌 우연성-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2. 우주적 환대와 책임성의 원리- 누구에게 환대, 누구까지 책임?
3. 초경계성(trans-boundaryness)의 원리
4. 초정체성(trans-identity)의 정치학

4.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주요 가치

1. 개방적 민족주의
2. 인간의 권리 개념과 범주를 확장한다
3.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
4. 세계의 영구적 평화
5. 지구적 공동체- 적십자 운동, 국경 없는 의사회

동질성의 공동체가 아닌 다름의 공동체 지향- 우리라는 포용의 원을 넓히는 것

D. 평가(Critique).

진정한 코즈모폴리터니란, 나와 너 모두가 이 우주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서로를 구분 짓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 타자에 대한 연민의 시선, 정치 사회 문화적 주변인들과 연대하며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가지고 사는 사람(52)이라 정의한다.

저자는 성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를 통해 지구적 공동체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마치 친척이나 가족과 같이 서로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우주적 공동체가 됨을 말한다(68).

생각해 보기

1. 우주적 환대와 책임성의 원리: 누구에게 환대, 누구까지 책임?
2. 다름의 공동체 – 가능할까?